

# 교협브리프

01  
2020

죽전캠퍼스 (448-70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상경관 512호 Tel. 031-8005-2894  
천안캠퍼스 (330-714)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19 자연과학 1관 105-1호 Tel. 041-550-1553

인 사 말

소통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김 선 욱 (교수협의회 회장)

존경하는 교수협의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6기 단국대학교 교수협의회(이하 교협)가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있네요. 지난해는 여느 해와 달리 새롭고 굵직한 일도 있었고, 좋은 일과 아쉬운 일이 많이 교차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대학은 교내외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교외의 상황은 입학자원의 역전현상,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 등 도전적인 과제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교육부는 입학금 폐지부터 등록금 동결까지의 재정 부담을 사립대에 가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 교육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대학은 각종 정부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대학은 과기부 지원의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에 2017년 선정된 데에 이어 지난해는 교육부 지원의 대학혁신지원사업 대상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대학혁신지원사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진통이 학과 차원 및 단과대학 차원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협은 이를 완화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경주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협은 우여곡절 끝에 진행되는 3주기 대학 진단 평가와 연계하여 대학과 교수가 상생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교수님들은 수년간 급여동결과 열악한 연구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우리 대학은 정부의 등록금을 동결하라는 압박과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학부생의 증가로 대학의 재정적 부담이 느는 상황이지만, 교협은 이러한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교수님들의 연구환경과 복리후생을 개선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대학은 70주년 기념관을 완공하여 의미 있는 대학사의 한 획을 장식하였고, 교협은 30주년을 기념하여 그동안의 흔적을 집대성한 교협 30년사를 출간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교협은 역대 회장님과 내빈을 모시고 교협 30주년 기념식 및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30년사 기록물은 USB를 통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여러분께 전달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장호성 총장님의 전격적인 사임과 총장대행 체제하에서 어려움이 있었으나 간선제 규정에 의거하여 김수복 총장님이 선출되었습니다. 우리 대학 사상 최초로 실시 된 간선제 총장선거에 처음으로 교협이 참여하여 역사적 순간을 같이하였습니다. 총장님이 2년 차 경영에 접어드는 만큼 총장님과 교협 사이의 소통을 더욱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지난번 공약에서 말씀드렸던 대학 발전, 소통강화와 교수회(노조) 준비 등에 대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속해서 대학 발전을 위한 고민을 공유하고, 소모임 활성화와 교수조직 효율 제고에 관해 연구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우리 대학은 퇴임 교수와 신입교수가 급증하는 상황이어서 이들에 대한 소통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경자년 신년하례식에서 “인덕 1.0”을 통해 “생각하는 것, 원하는 것 다 되세요~~”를 들으신 것처럼 모든 교협 회원님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는 행복한 한 해가 되길 다시 한번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건의문

## 제16기 전반기 교수협의회 건의 현황

16기 교협의 전반기(2019년) 임기 중, 교협이 교수님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대학에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관철한 사항과 그렇지 못했던 사항에 대해 아래의 성과표로 정리하여 최종보고를 드립니다. 그동안 교수님들의 건의사항의 수렴 및 관철을 위해 물심양면 노력하셨던 김선욱 16기 교협 회장님과 대학본부 관련자들에게 교수님들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 항목           | 활동계획                                            | 수행<br>현황 | 반영 현황                         |
|--------------|-------------------------------------------------|----------|-------------------------------|
| 기획/발전<br>위원회 | 학사구조 개편 설명회 건                                   | 완료       | -                             |
|              | 죽전캠퍼스 어린이집 로드맵 기획                               | 건의       | -                             |
|              | 2019년 기본급 인상 관련 협상                              | 건의       | -                             |
|              | 교수노조 자료조사                                       | 진행       | -                             |
| 인사/학사<br>위원회 | 강의평가 개선방안 제안<br>- 점수 이상치 제거<br>- 악의적 비방문구 필터링 등 | 건의       | -                             |
|              | 교권 신장 활동<br>강의 녹화 및 촬영 제한 요청<br>저작권 침해 보호       | 요청       | 인권센터의 협조요청 예정                 |
| 출판/홍보<br>위원회 | 16기 교수협의회 브리프 편집                                | 완료       | 2020년 3월 초 및 2021년 3월 초 배포 예정 |
|              | 교수협의회 30주년 책자 발간 및 출판기념회 개최                     | 완료       |                               |

|              |                                                                          |    |                            |
|--------------|--------------------------------------------------------------------------|----|----------------------------|
| 연구<br>위원회    | 연구장려금 산정 방안 개선                                                           | 건의 | -                          |
|              | IF 가중치 적용된 연구업적을 모든 제도에<br>일괄 적용<br>(승진/승급/재임용/대학연구비/연구년/연구장<br>학생 선정 등) | 건의 | -                          |
|              | 해외 학술대회 발표도 연구업적으로 인정(중<br>복 제외) 추진                                      | 건의 | -                          |
|              | 산학협력 및 연구과제 수주 실적에 따른 공<br>동 연구원 연구업적 점수 인정 추진                           | 건의 | -                          |
|              | 대학 연구비 지원 재검토<br>(이공대교수 대학 연구비 제한)                                       | 건의 | -                          |
| 후생/복지<br>위원회 | 교수수첩 및 달력 배포                                                             | 건의 | 탁상 달력만 제작으로 회신             |
|              | 퇴직교수 요청시 상조 조기 지원 서비스                                                    | 진행 | -                          |
|              | 교수 건강체력 평가 및 처방<br>(교협과 스포츠과학연구소 협력)                                     | 보류 | 세금 및 영수증 발행 문제에<br>대한 토의 중 |

## 건의문

## 제16기 후반기 교수협의회 건의사항 (연구 위원회)

## 이 기 광 교수 (연구 위원장)

저는 교수협의회 하반기(2020년)에 교수협의회에서 추진하였으면 좋겠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적고자 합니다. 교수님들의 연구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이슈들과 의견이 있으나, 현재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으로 두 가지만 건의 드립니다.

첫째, 2019년도 축소된 연구장려금 및 대학연구비의 원상회복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9년도 신임교수 대규모 총원과 신임교수의 대학연구비 2년 의무지원에 따른 예산 부족이라고 본부에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협의 입장은 작년에는 신임교원 대규모 총원에 따른 기존 연구비 예산의 부족을 본부에서 미처 예상하지 못했기에 발생한 문제라고 애써 인정하고자 합니다. 다만, 올해에는 부족했던 연구비 예산을 증액하여 작년에 일시적으로 축소되었던 연구장려금 및 대학연구비의 원상 회복을 건의드립니다. 작년의 연구비 축소는 인정하지만 올해부터라도 기존 연구비의 증액이 아닌 원상회복만을 요구드리는 것이므로 전혀 무리한 건의가 아니라는 교협의 입장을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둘째, 교외연구비를 수주하신 교수님들의 처우 강화입니다.

지난 15기 교협에서 연구과제 책임자의 출장경비 기준을 개선한 바 있는데, 교외연구비의 간접비를 통해 학교재정과 중앙일보 등 학교평가에서 산학협력 관련 지표에 기여하시는 교수님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사항이 추가로 있어 건의드립니다. 지난 15기 교협에서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교외연구비 지원을 받은 연구실적에 대한 연구장려금 산정시 100% 인정을 요청드립니다. 학교재정 및 학교평가에 기여함과 동시에 연구성과도 냈는데, 개인적인 연구성과만 낸 교수님들보다 연구장려금 산정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일종의 역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과제수주실적



에 따른 연구실적 대체인정 기준에 있어서도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간접비 10만원당 1점이고 자연공학계열은 이보다 낮습니다. 이는 대학연구비의 등재지 기준 400만원당 150점에 비해 거의 1/4 수준입니다. 이 또한 개인적인 연구에 비해 학교재정 및 산학협력 기여도를 매우 박하게 계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약컨대 산학실적에 따른 연구장려금 및 연구실적 대체인정 기준의 상향을 건의드리며, 이에 따른 연구비 추가 지출은 학교재정 및 학교평가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비율이라고 생각되는바 역시 무리한 건의가 아니라고 강조드립니다.

## 건의문

## 제16기 하반기 교수협의회 건의사항 (기획/발전 위원회)

조 한 승 교수  
(기획/발전 위원장)

### 1. 교수조직의 위상 제고

- 헌법재판소의 교수노조 합법화 판정에 따라 2020년 4월부터 교수노조 결성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에 서울대학교를 포함한 여러 대학들에서 교수노조가 형성되고 있음.
- 하지만 교수노조 설립으로 캠퍼스의 정치화와 구성원간 갈등 조장을 우려하는 견해도 적지 않은 만큼 선불리 교수노조를 결성하기 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검토하는 한편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점진적 접근이 바람직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단국대의 교수조직인 단국대 교수협의회는 단국대학교의 공식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비공식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그 규모와 역사 및 실질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교수조직으로서의 대표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주요 대학들, 특히 단국대와 흔히 비교되는 동국대, 건국대, 국민대 등은 이미 교수조직이 교수회 형태로 설치되어 있어 그 위상이 단국대 교수협의회보다 훨씬 높게 평가되고 있음.
- 이에 교수협의회를 교수회 등 보다 강화된 위상의 조직으로 전환하여 학교의 공식기관에 포함시킴으로써 단국대 교수로서의 긍지를 갖도록 하며 실질적으로 학교 발전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필요가 있음.



### 2. 연구비 예산 증액 편성

- 최근 교수 신규임용이 대거 이루어지면서 신입교수에 대한 연구비 지급으로 인하여 기존 교수님에 대한 연구비 지원이 대폭 삭감 내지 폐지되었음.
- 대학 발전의 가장 기본인 연구에 대한 지원이 감소 및 폐지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장기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예산편성 과정에서 신규 채용되는 신입교수 연구비 규모뿐만 아니라 기존의 연구비 규모를 고려한 현실적인 연구비 예산 책정이 필요함.
- 궁극적으로 기존 연구비의 원상복구와 신입교수에 대한 연구비를 동시에 고려하는 연구비 예산 증액 편성을 요청함.

### 3. 기본급 인상폭의 현실화 및 일부 수당 인상

- 등록금 인상 제약에 따라 학교의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십분 이해하고 있으며, 재작년 교직원의 임금이 인상되게 된 점을 매우 높게 평가함.
- 그러나 기본급 인상보다는 수당 증액 방식으로 이루어져 실질적인 임금인상의 현실화 기대에 못 미친 것이 사실임.
- 이에 공무원 기본급 인상 수준으로 교수의 기본급 인상을 현실화함으로써 신임총장 취임, 혁신사업 등 학교의 발전적 전환기에 부응하는 조치를 이루고 학내 구성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그동안 임금 가운데 수당에 해당하는 항목도 물가인상 현실을 반영한 인상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왔으나, 교재개발연구비는 매우 오랫동안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함.

#### 건의문

#### 제16기 후반기 교수협의회 건의사항 (후생/복지 위원회)

조 상 우 교수  
(후생복지위원장)

#### 1. 화장실 청소상태 항시 점검 요망

프랑스어과 김현주 교수가 외국어대 3층 화장실 청소상태가 불량하다는 건의를 하여서, 이를 총무팀에 전달하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이 문제를 항상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 교직원식당 메뉴 교체

교직원식당 메뉴가 처음에 식당을 인수할 때는 새롭고 좋았으나, 이후 같은 메뉴가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교수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이 사항도 총무팀에 건의하였지만 잘 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교협은 이를 담당 부서에 계속해서 건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3. 달력과 교수 수첩 제작

현재 학교는 탁상 달력만을 제작해서 교수들에게 제공하고, 긴 달력과 교수 수첩은 제작하지 않습니다. 이런 조치가 비용 절감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교수 수첩은 부서 연락처를 외부에서 볼 수 있기에 편리한 점이 더 많습니다. 교협은 이러한 사항을 담당 부서에 건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995년 3월 단국대학교에 몸을 담은 이래 어느덧 25년이 지나고 있으니 강산이 두 번 이상 변하였고 학교의 규모와 여건도 많이 변모하였으며 무엇보다 제 자신이 이제는 교육자로서 거의 종착역에 다다른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다사다난한 외부의 교육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은 많은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러한 급변하는 교육환경을 몸소 겪으면서 나름 잘 견뎌왔음에 지금은 어느 정도 심적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저와 단국대학교 교수협의회와의 인연도 꽤나 깊은 것 같습니다. 제5기 교협(1997.03~1999.02) 때는 천안캠퍼스 총무로, 그리고 제12기 교협(2011.03~2013.02)에서는 천안캠퍼스 지회장으로 활동을 하였으며, 제16기(2019.03~2021.02)에서는 김선옥회장님과의 친분으로 과분하게도 '교협 30년사 편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차분히 편찬하려던 당초의 계획이 우리 대학 72년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단국역사관' 개관식 이전의 '타임캡슐' 탑재 일정에 맞추어 일정이 급히 변경되었고, 기별 자료가 다소간 양적으로 불균형을 이루어 이를 보정(補正)하여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는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학기 중이고 자료수집 시간이 부족하여 '타임캡슐' 탑재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견되었으나, 16기 교협 회장단의 적극적인 노력과 전임 기별 회장단의 자료제공 협조에 힘입어 겨우 편집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마침내 가제본한 '단국대학교 교수협의회 30년사'를 제출하여 탑재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 10월 18일 정식 책자로 출판하였고, 11월 29일(목) 오후 5시에 김수복총장님과 교무위원들, 교협 회장단, 전임회장님들 그리고 운영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죽전캠퍼스에서 '단국대학교 교수협의회 30년사 출판기념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편찬 작업을 하면서 저는 그동안 제가 잘 모르고 있었던 단국대학교의 다양한 모습을 다시 파악할 수 있었고, 단국의 역사 속에 묻혀 있는 애환이 담긴 뒷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교협 30년사'에는 이사장님, 총장님, 교협 회장님들의 축사와 회고사, 30년사 화보, 교협의 발자취 및 연대기 그리고 다양한 자료들이 총망라되어 수록되었습니다. 그중에는 교협 운영위원들의 기고문, 나아가 무명씨들의 고언이 담긴 이야기도 담겨 있으므로 단국대학교 교수님들에게는 일독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단국대학교 구성원의 일원으로 미력이나마 교수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다는 데에 대해 그리고 어려운 여건과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편찬 작업을 마무리 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제 나름 안도를 하고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인적 그리고 물리적 한계로 교협 30년사 책자에 적지 않은 오류가 남아 있을 수 있으리라 여겨지며 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제 책임임을 말씀드리며 또한 너그러이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정책연구에 대한 세부계획 및 지침서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공문으로 전달받고 한동안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다. 이후 설명회에서 각 학과에서 참석한 학과장들과 조교들은 정확히 뭘 하는지는 모르는 정책연구의 연구위원으로 선정되었고, 연구 책임자인 발표자는 이미 대부분 참석자가 연구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본인이 제시하는 목차에 맞추어서 각 학과의 상황을 작성해서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뭔가 ‘불통’의 상황이 발생하는 순간이었다.



나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추진 주체)은 ‘교육 과정 개선’을 위해 우리 대학이 추진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 교수님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이것을 단지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하고 행정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학교에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용하는 ‘공문’은 행정적으로 일을 수행한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하는 행위이지, 다른 구성원들에게 해당 내용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 아니다.

실제로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이후에 학과별 연구보고서를 취합하는 과정에서는 ‘이메일’로 관련 사항에 대한 정보를 교수들에게 제공하고 작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하였다. 학교측에서 ‘공문’의 한계를 어느 정도 인식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대학혁신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일률적인 행정절차가 아니라 대다수의 학교 구성원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식으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교수님들이 수행하는 강의, 과제 검토, 성적 평가, 연구발표, 논문작성, 학생상담, 취업 소개, 학과 내 구성원들과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활동 등은 모두 이메일이나 문자 혹은 카톡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행정적 근거는 ‘공문’으로 남기더라도, 많은 학교 구성원들의 참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당 내용을 알려주는 ‘이메일’이나 SNS 등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소통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편교협 브리프 편집 담당 교수로부터 대학혁신사업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청탁을 받고 당혹스러웠다. 내가 대학혁신사업의 실체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그 교수님께서서는 문과대 평교수로서 경험한 그동안의 대학 구조조정이나 넓은 의미의 혁신사업 일반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나 관련된 고충을 써주면 된다고 했다. 그렇다면 할 수 있는 얘기가 조금은 있겠다 싶어 마지못해 청탁을 받아들였다. 나는 대학 전체의 차원을 조망할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문과대 평교수의 입장에서 개인적인 '불평'을 간략히 적어보고자 한다.



어디까지나 개인적 경험에 기초한 주관적인 의견임을 강조하고 싶다. 나는 2009년 국문과에 부임하여 지난해로 근속 10년을 채웠다. 우선, 이 기간에 내가 경험한 가장 큰 사건은 죽전-천안 캠퍼스 간 유사 학과 통폐합이었다. 내가 처음 부임했을 때 문과대에는 총 여섯 개의 학과가 있었다. 그중에서 네 개의 학과가 사라지고 두 개의 학과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지금의 네 개의 학과가 남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큰 진통이 있었다. 역사와 전통이나 경쟁력 면에서 매우 우수한 학과가 사라지는 과정을 목도 하면서 많은 교수님이 안타까워하면서 반발했지만 속수무책이었던 것이다. 대다수 평교수님들은 무기력하게 바라보면서 뉘두리를 하는 수밖에는 도리가 없었다. 사실 나는 당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의 고충을 충분히 공감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추진되어온 교양 교육 개편(혹은 혁신) 사업 과정에서는 분열과 갈등을 뼈저리게 체험했다.

이 사업의 추진 과정은 많은 문과대 교수님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개편하는 교양 교육 과정이 문과대의 성격과 유사했기 때문에 잦은 충돌과 갈등이 빚어졌다. 그 과정에서 생긴 후유증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 돌이켜 보면 양보와 타협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는데 부질 없는 인정 투쟁과 아집으로 갈등을 키운 것은 아닌가 싶다.

근본적인 문제는 '개편의 주체'가 '한 사람'에 편중되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점에 대해 문과대 교수님들은 물론 내가 아는 많은 교양학부 교수님들도 불만을 토로했다. 권한이 한 사람에게 집중된 형국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소통이 불가능했다. 자신과 다른 다양한 의견들을 태연하게 짓밟아 버리는 태도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겸손과 존중, 포용의 덕목이 빠져 있었다. 문과대 교수님들의 의견에 대해 '개편의 주체'가 보이는 태도는 시종일관 '문과대 교수는 교양 교육 개편에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다면 국문과와 교양 대학의 중복 교과목을 왜 담당 교수들끼리 협의하여 조정할 수 없다는 것인가? 다른 많은 참신하고 멋진 명칭도 많은데 왜 문과대 교수님들 대부분이 합리적인 이유로 반대하는 'liberal arts collage'를 그토록 고집해야만 했던 것일까? 지면 관계로 개편 과정의 부조리를 조목조목 나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묻고 싶다. 과연 그런 태도가 대학 공동체 전체의 발전을 위한 것이었을까. 그것이 진정 학생들을 위한 것이란 말인가? 앞으로 이루어질 대학의 혁신은 소통과 존중, 포용의 원칙에 따라 공동체의 하모니 속에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는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더 의미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

나는 우리 대학 공동체의 혁신이 더 나은 미래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혁신이 발전이 아니라 퇴보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독선과 아집으로 이루어진 혁신은 그러할 수밖에 없다. 공동체의 분열과 갈등, 구성원의 고통과 상처를 먹이로 이루어진 혁신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겠는가? 자신만이 진리이고 정의라는 착각은 독단과 아집을 넘어서 일종의 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악은 다른 표식을 지니는 것이 아니다. 한나 아렌트도 말했듯이 그것은 우리 내부의 평범한 일상 속에 선량한 얼굴로 잠재한다. 우리는 자기의 오만과 독선을 경계하기 위해 브레히트의 시를 다시 읽어야 한다.

- 1 칠장이 히틀러는/ 말했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나에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갓 만든 회반죽을 한 통 가져와/ 독일 집을 새로 칠했다네./ 모든 독일 집을 온통 새로 칠했다네//
- 2 칠장이 히틀러는/ 말했네. 이 신축가옥은 곧 완공됩니다!/ 그리고 구멍난 곳과 갈라진 곳과 빠개진 곳들/ 모든 곳을 모조리 발라 버렸다네/ 모든 똥덩이를 온통 발라 버렸다네//
- 3 오 칠장이 히틀러여/ 왜 자네는 벽돌장이가 되지 못했나? 자네의 집은/ 회칠이 비를 맞으면/ 그 속의 더러운 것들이 다시 드러난다네/ 그 똥뿔간 전체가 다시 드러난다네.//
- 4 칠장이 히틀러는/ 색깔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배운 바 없어/ 그에게 정작 일할 기회가 주어지자/ 모든 것을 잘못 칠해서 더럽혔다네/ 독일 전체를 온통 잘못 칠해서 더럽혔다네 (1933)

-브레히트, 「칠장이 히틀러의 노래」(김광규 역)

## 기고문

## 정년퇴임을 맞이하며

송 운 석 (행정학과)

30여 년을 단국대학에 근무하다 정년퇴임을 맞이하여 정든 교정을 떠나게 되었다. 자꾸 주변 사람들이 은퇴 소감을 묻는다. 솔직한 심정을 말하면 아쉬운 점도 있지만 참 후련하다. 옛 나의 스승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숭고한 일은 사람을 가르치는 일이라 하셨다. 대학에 근무하면서 나는 늘 그 숭고한 사명을 다하지 못함에서 오는 자책감을 갖고 있었다. 또한, 나의 내면에는 대학으로부터 받는 혜택에 보답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늘 자리하고 있었다. 정년퇴임은 이러한 마음의 짐으로부터 나를 해방하는 느낌을 주었다.



나는 평생 행정학을 가르치면서 行政을 지속적인 실천을 의미하는 行과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를(一) 물러섬 없이(止) 도끼(斤)를 들고 지켜 나아감을 의미하는 政의 합성어로 이해해왔다. 대학을 떠나면서 나에게 물었다. “교직에 몸담으면서 과연 마음속에 도끼를 들고 물러섬 없이 지키고 실천해 나아가려 한 그 하나(一)는 무엇이었는가?”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스승이 답했다. “관계”에 대한 연구와 교육이었노라고.

맞다! 나는 한평생 ‘인간관계론’이라는 과목을 핵심강의로 생각하고 연구와 교육에 열정을 쏟았다. 관계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성공적 관계가 가능한지 고민해왔다. 하지만 명쾌한 답을 찾지 못한 채

강단을 떠난다. 한 가지 터득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수없이 이어지는 많은 만남을 의미 있는 관계로 발전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단절과 외로움으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만남을 소중한 관계로 발전시키려면 그 만남에 의미를 부여할 때 가능하다. 의미를 부여한다고 함은 만남의 대상에 내재한 가치를 발견하고 인정하며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말이다. 물론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를 부여할 때 만남은 깊은 관계로 승화된다. 먼저 그 만남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 관계 형성의 주체가 된다. 대학을 떠나면서 우리 대학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치를 더 많이 발견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캠퍼스에서 수없이 만난 학생들 그리고 동료들의 소중함을 알고 그들이 가진 가치를 더 많이 발견하면서 매일 매일을 살았다면 얼마나 하루하루가 경이롭고 행복한 날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한 회한을 뒤로 한 채 교정을 떠나면서 나는 나에게 다시 묻는다. “마지막 남은 인생에서 굳은 신념으로 물러서지 않고 행하려고 하는 그 하나(一)는 무엇인가?” 나의 동료 교수들에게도 은퇴 즈음에서가 아니라 지금 당장 “교직에 몸담으면서 굳은 신념과 의지를 갖고 물러서지 않고 실천하고자 하는 그 하나(一)는 무엇인가?”를 물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관계 형성의 주체가 되어 우리 대학이 가진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고 또한 캠퍼스에서 만나는 모든 인연의 가치를 더 깊게 보고 느끼면서 그 경이로움에 가슴 설레 이는 나날의 삶을 살아보라고 권하고 싶다.

## 기고문

## 단국대학교에 입사하며

## 임 유 미 (간호학과)

어린 시절 나는 오랜 기간 피아노를 배웠기 때문에 당연히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을 꿈꾸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암이라는 질병으로 오랜 기간 투병하시는 것을 곁에서 보면서 나는 막연히 아픈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간호대학에 입학하였고, 간호학을 공부하면서 인간에 대한 이해와 돌봄의 개념이 매우 매력적이라 느꼈다. 그러나, 내가 대학을 졸업 후 임상에서 실제로 경험한 병원이란 세계는 상상보다 험난하였고, 항상 왜 그리도 바쁜지 학교에서 배운 원칙대로 간호를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병원에서 나는 환자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다



양한 직군의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하면서 알게 모르게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았다. 또한, 나는 3교대 근무를 통해 체력적으로 점점 지쳤고, 어떻게 하면 빨리 이곳을 떠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다이내믹한 현장에서 묘한 보람과 자부심이 생기면서, ‘아... 이걸 내가 정말 잘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니 환자도 좋아지고 보호자와 신뢰도 쌓이네!’, ‘여기 있는 수 많은 환자의 목숨과 쾌유가 간호사들에게 달려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일했던 곳에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간호를 발견하니 환자에게 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고 바빴지만, 그것은 신규간호사 때 느꼈던 바쁨과는 확실히 달랐다. 나는 ‘만일 미래의 간호사가 될 학생들이 이 같은 진정한 보람과 자부심을 조금이라도 미리 안다면 그렇게 빨리 그만두지 않을 텐데’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 느낌들을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취업하자마자 1년 안에 퇴사하는 신규간호사들을 보는 것에 마음이 아팠다. 또한, 나는 임상으로 실습을 나온 3학년과 4학년 학생간호사들을 만났을 때 학생들의 그 초롱초롱한 눈빛을 보면 해 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너무도 많았다. 그때부터 나는 한 걸음씩 교수의 꿈을 키워왔고, 감사하게도 인연이 닿아 이곳 단국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로서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대학교 재학 시절, 나는 단국대 기악과 95학번인 절친을 만나러 한남동 캠퍼스에 여러 번 방문 했던 적이 있다. 천안캠퍼스는 이번에 임용을 받고 처음 왔지만, 입구부터 보이는 천호지, 산학협력관, 체육관, 대운동장, 학생회관, 보건 간호관 등 아기자기 잘 배치된 캠퍼스는 나의 모교와 너무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타임머신을 타고 내가 다시 스무 살의 풋풋한 대학생으로 돌아간 것 같았다. 게다가 학생들에게 이론과 실습을 잘 연결해서 가르칠 수 있도록 대학과 병원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에도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보니 어느덧 벌써 반년 전, 한참 더웠던 여름 죽전캠퍼스의 신임교원 연수와 신임교원 소개를 통해 내가 이곳 단국인의 정식 일원이 되었다는 뿌듯함에 떨 듯이 기뻐던 일들과 처음으로 참석한 단국인의 밤 동문 행사에서 단국대학교의 역사와 졸업생들의 학교에 대한 뜨거운 애정을 제대로 확인했던 것도 나에게 감사한 기억이다.

단국대에서의 소중한 첫 학기는 나에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기에, 나는 앞으로 더욱더 학교생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번 달에 서울에서 천안으로 이사할 계획이다. 처음에는 이곳이 조금은 낯설고 나만 이방인이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지내면 지낼수록 따뜻한 사람들이 있는 곳, 그리고 내가 행복해지는 곳을 느꼈다. 그래서 나는 병원 현장의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지켜내는 진정한 의료인을 키울 수 있는 이곳 단국대학교에서 앞으로 남은 나의 열정을 모두 쏟아내고 싶다.

기고문

### 3.1운동 100주년 기념 국토대장정

“독립을 다시 걷다” 참여 후기

김 보 한 (교양학부)

단국인이려면 누구나 단국대학교가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이끈 범정 장형 선생이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최초로 설립한 4년제 대학이며, 그 역사와 뿌리가 굳건할 뿐만 아니라 명예로운 설립의 역사를 갖고 있는 민족사학임을 잘 알고 있다.

2019년 개교 72주년을 맞이하여 단국대학교의 재학생을 중심으로 국토대장정을 실시하였다. 우리 대학의 국토대장정은 2015년 “범정의 발자취를 찾아서 독립의 길 함께 걷기 프로젝트”로부터 시작되었다. 국토대장정의 취지가 우리 대학의 설립자인 장형선생이 일제강점기에 반도고학생친목회(半島苦學生親睦會)의 총재로서 애국 순회강연을 다녔던 길을 따라 함께 걸으며 숭고한 애민 애국 정신을 본받고 단국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고양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에 있었다.



2019년은 우리 민족의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한 해였다. 따라서 3.1운동의 정신을 되새기고 장형 선생의 숭고한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국토대장정의 주제가 “독립을 다시 걷다”로 정해졌다. 당시 우리 대학의 설립자인 장형 선생이 1921~22년 전국 애국 순회강연에서 미처 담아내지 못했던 충청남도의 천안, 아산, 예산, 홍성, 광천, 청양, 공주, 조치원, 목천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국토대장정의 길을 새롭게 편성하였다. 지역별 세부 유적지로는 우리 대학을 출발해서 아산에 수당 이남규 유적과 충국순의비, 예산에 매현 윤봉길 의사 사적과 이남규 고택, 홍성에 백야 김좌진 장군 생가와 만해 한용운 선사 생가, 광천에 김좌진 장군 동상, 청양에 면암 최익현 선생 동상과 권흥규 선생 순열비, 공주에 송의사와 석송 3.1만세 유적지, 세종에 전의시장 3.1만세길, 마지막으로 종착지로서 독립기념관에서 대장정을 마치는 214km의 대순례 코스였다. 이 코스를 선택한 이유는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가 위치한 천안 일대

가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메카로써 우리 대학의 가까운 지역에서 전개된 독립운동의 유적지를 중심으로 모든 단국인의 마음에 독립운동의 자긍심이 깊게 새겨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었다.

이번의 행사에서는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재학생 55명을 비롯하여 교직원과 인솔자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특히 국토대장정의 걷기 행사에 남보우 부총장님, 이유찬 전 스포츠과학대 학장님, 오진주 간호대 학장님, 전용배 교수님이 재학생들과 함께 해 주셨기에 모두에게 큰 응원이 되었다. 또 무더위에 지친 학생들에게 나누어 줄 시원한 음료수와 얼음을 한가득 준비해서 현장으로 달려와 주신 직원 여러분들의 배려가 '단국인은 하나'가 되어 전체 교직원의 공동 참여하는 '독립단국대'의 행사라는 의미를 되새기게 해 주었다. 2019년에는 설립자 범정 장형 선생의 독립운동 정신을 충청남도의 각 순례지에 전달하고, 반대로 충청남도 독립운동 유적지의 순례를 통해 송고한 애민, 애족 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국토대장정을 진행할 수 있었다.



독주회를 마친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독주회를 하고 난 소감에 대해 원고를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나는 매년 독주회를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지만 나에게 가장 특별한 경험이었던 2016년도의 독주회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민속악으로 분류되는 산조, 궁중과 상류층 음악으로 분류되는 정악, 무수히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창작곡 등의 분야에서 많은 레퍼토리를 연주한 가운데, 가장 희소성이 높고 특별했던 공연을 꼽자면 단연 보허사(步虛詞)와 그 계열 음악인 도드리를 연주했던, 제16회 이수진 가야금 독주회 '소요유'를 들 수 있겠다.



보허사는 글자 그대로는 허공을 걷는 노래라는 뜻이다. 도교 의식이 드러난 음악으로 원래는 고려 시대에 들어온 송나라의 사악이다. 예전에는 여기에 가사가 있었는데, 유선(遊仙)의 황홀감을 묘사한 부분이 있는 것을 보면 '보허자,' 허공을 걷는 자는 신선을 의미하는 것일 듯하다. 그래서, 나는 독주회 타이틀을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하는 장자의 철학에서 인용하여 '소요유'로 정했다.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움 그대로, 마음껏 노니는 마음으로, 예술을 위한 예술보다는 삶 자체가 예술이길 바라는 장자의 생각에서 기인하여……

보허사라는 곡은 매우 느린 곡이다. 메트로놈에서 나타나는 가장 느린 박이 tempo ♩=30인데, 이 곡은 tempo ♩=20의 곡이다. 연습 초반에는 너무 느려서 무슨 애길 하는지도 모르겠고 긴 호흡을 하기 힘들었다. 그런데 연습을 할수록 선율의 선도 느껴지고 속도도 점점 빠르게 느껴지는 것은 참으로 재미있는 경험이었다. 덕분에 깊은 호흡을 터득하게 된다. 인간과 달리 수명이 무한하다 여겨지는 신선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속도와 비교해 가늠이 안 될 정도의 느림을 느끼듯, 한음 한음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느리게 발을 떼듯 연주하는 기분이었다. 마치 내가 신선이 된 듯한 기분이었다.



연주회를 앞두고 두세 달은 모든 업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저녁 식사를 한 후 밤 12시까지 연습을 했다. 피곤할 때도 많았지만 하루도 어김 없이 연습을 했다. 혹자는 너무 힘들었겠다고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 하지만 그 시간은 내게 휴식 같은 명상의 시간과도 같았고 잠시 다른 세계로의 여행 같기도 했다. 느림으로의 여행, 그곳에는 치유, 긴장의 이완, 휴식이 있었다.

바쁘게 살아가는 모든 현대인이 그렇겠지만, 나 또한 조급증과 스트레스에 늘 시달려선지 보허사를 연습하는 시간이 참 행복했다. 그래서 연주회를 준비하면서, 느리고 편안한 음악으로 바쁘고 지친 삶에 숨표를 그려 넣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음악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다. 빠른 것이 재미라 느끼고 느린 것은 재미가 없다고 느끼기가 십상인 요즈음 색다른 재미의 고찰이 될 것 같기도 했고.

고서(古書)를 통해 가끔 옛이야기를 접하다 보면 지금의 시대는 그때와 많이 변한 것 같지만, 실상 사람 사는 일이란 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다. 장자의 소요유를 접하면서 우리 역시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자 의도적으로 도시에서 자연으로, 빠름에서 느림으로 가고자 한다는 것을 새삼 깨닫는다. 그러나 느림은 우리의 일상이 아닌 '잠시 다녀옴'의 세상이고 항상 찾기에는 여의치 않은 꿈이 되어버린 듯하다.

오늘날 좀처럼 익숙해지기 어려운, 잊고 있던 느린 호흡의 우리 음악을 연주할 때, 간혹 그럴 때 자연을, 자유로운 장자를 상상해본다. 장자는 오래전 사라진 인물이지만, 그가 남긴 구절들은 이 시대에도 살아 숨 쉬며 나를 자신이 그려놓은 유토피아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소요유, 장자가 말하는 철학은 억지스럽게 무언가를 만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노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도 아닌, 단지 그 노력이라는 것이 언제나 자연스러운 노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장자의 소요유는 전국시대라는 혼란스러운 시기에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하나의 도피이자 방책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말이다.

예술에서, 음악에서, 우린 어떤 세계를 추구하고 위안을 구하려는 걸까. 느린 호흡의 보허사에서, 그리고 현실에서 아무런 걱정 없다는 듯이 흘러가는 도드리 가락에서.....

나의 2016 연주회, <소요유>는 어떠한 경지에서 노닐 듯 자연스러움 자체로 연주하고 싶은 마음과 급하게 돌아가는 바쁜 일상에 지친 모든 이들에게 쉬어 갈 수 있는 '무하유지향(無何有之鄉)'을 누리 게끔 하고픈 바람을 담고 있으며, 장자의 이 멋진 뜻을 연주로써 그것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아로새기는 좋은 시간이었다.

| 항목 | 활동계획                          | 수행<br>현황 | 반영 현황                                                                                |
|----|-------------------------------|----------|--------------------------------------------------------------------------------------|
| 공통 | 학기 중 전자동 원두커피서비스 실시           | 진행       | 1학기 여름방학 계절학기 기간 연장실시                                                                |
|    | 신임교원 환영오찬 및 축전 발송             | 완료       | [1학기]<br>- 천안캠퍼스: 3월 14일 오찬 실시<br>- 죽전캠퍼스: 3월 20일 오찬 실시<br>축전 발송 완료                  |
|    |                               | 완료       | [2학기]<br>- 천안캠퍼스: 9월 19일 오찬 예정<br>- 죽전캠퍼스: 9월 25일 오찬 예정<br>축전 발송 완료                  |
|    | 통합운영위원회의 개최                   | 완료       | [1학기]<br>일자: 2019년 3월 28일(목)<br>참석현황: 천안위원 7명, 죽전위원 18명 등 총 25명                      |
|    |                               | 완료       | [2학기]<br>일자(예정): 2019년 10월 2일(수)                                                     |
|    | 중간고사 기간 학생 간식행사 진행            | 완료       | [1학기]<br>- 천안캠퍼스: 4월 17일(학생회 공동수행)<br>- 죽전캠퍼스: 4월 18일(교협 단독수행)                       |
|    |                               | 완료       | [2학기]<br>- 천안캠퍼스: 10월 17일 수행 예정<br>- 죽전캠퍼스: 10월 18일 수행 예정                            |
|    | 등반대회 및 신임교원 환영회               | 완료       | 2018년 4월 27일 충남 천안시 소재 태조산 등반 및 신임교원 환영회 실시<br>(교수협의회 단독행사)                          |
|    | 스승의날 교수협의회 기념품 증정             | 완료       | 5월 15일 ~ 6월 3일 약 3주 간 교수협의회 로고와 명칭이 날인된 스포밴드 양 캠퍼스 배포(총 871개)                        |
|    | 지회별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개최          | 진행       | 2019년 1학기 우리사업 중간평가 및 추후사업 진단 간담회 실시(6월 25일) 등                                       |
|    | 2019년도 정년퇴임교원 화환과 상품권 증정 및 오찬 | 완료       | 오찬 일정 생략                                                                             |
|    |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 위원활동 (교원 대표위원)    | 완료       | 교수협의회 김선욱 회장 및 조한승 지회장                                                               |
|    | 생애 첫 신임보직 발령교수 명패 또는 화환 발송    | 완료       | 김수복 총장(화환)<br>안순철 대외부총장(화환)<br>강창현 보건복지대학원장(명패)<br>한종수 정책경영대학원장(명패)<br>김종수 치과병원장(화환) |
|    | 교수협의회 30주년 기념책자 및 CD          | 완료       | 2019년 11월 1일 개교기념 행사일 책자 배포                                                          |

|                             |                            |                               |
|-----------------------------|----------------------------|-------------------------------|
| 발간(출판/홍보 위원회 주관)            |                            | 를 목적으로 제작 중(2020년 초 CD 배포 예정) |
| 교협 브리프 제작(출판/홍보 위원회 주관)     | 예정                         | 2020년 3월 초 및 2021년 3월 초 배포 예정 |
| 여교협 특강 실시                   | 완료                         | 테라리움 정원 만들기                   |
| 교수 동호회활동 지원<br>- 테니스회 및 골프회 | 완료<br>(1학기)<br>예정<br>(2학기) | 총 지원액 3,500,000원 내로 집행 예정     |
| 단국가족스키캠프 지원                 | 예정                         |                               |
| 국토대장정 지원(일금 400,000원)       | 완료                         |                               |
| 교내 미화원 어버이날 선물 증정           | 예정                         | 2020년 2월 및 2021년 2월 수행 예정(설날) |
| 여교수협의회 특강                   | 완료                         | [1학기] 5월 테라리움 유리정원 만들기        |
|                             | 완료                         | [2학기] 12월 크리스마스 리스 만들기        |

## 활 동

## 제16기 통합운영위원 회의 개최소개

## 교수협의회 사무국

### 1. 16기 교수협의회 1차 운영위원회의 실시

- 일시: 2019년 3월 28일(목) 16시
- 장소: 죽전캠퍼스 범정관 505호 대회의실
- 주요 토의사항:
  - 1) 이전 교협활동 경과보고
  - 2) 2019년 활동계획 심의, 심의안건 토의 및 의결
    - 교수 수첩 발간, 교수 달력 발간 안
    - 교수 연구 산학 실적 토의
    - 입원 병가 실적 안
    - 교수 전화번호부 안
  - 3) 분과위원회 구성 및 분과위원장 선출



## 2. 16기 교수협의회 2차 운영위원회의 실시

- 일시: 2019년 10월 2일(목) 16시 30분
- 장소: 죽전캠퍼스 범정관 505호 대회의실
- 경과보고
  - 1) 2019-1학기 활동내용 보고
  - 2) 2019-2학기 활동계획 보고
  - 3) 기타활동 및 경조사 활동 보고
- 주요 토의사항
  - 1) 2019년 2학기 활동계획안 심의(공통)
    - 학기 중 전자동 원두커피서비스 연장 시행  
(시행 기간: 2019년 9월 2일(월) ~ 2019년 12월 19일(목))  
(연장 기간: 동계 계절학기 기간(~ 2020년 1월 14일 (화))
  - 2) 중간고사 간식행사 진행 안
  - 3) 교수협의회 30주년 출판기념회 행사 및 기념책자 제작 안
  - 4) 여교협 주최 2차 특강 계획 안
  - 5) 교협 1호 브리프 제작 안
- 기타 토의사항
  - 1) 교내 미화원 설날 선물 증정 안



### 1. 제16기 교수협의회 운영위원회 구성

- 죽전캠퍼스: 24명 (10개 단과대학, 여교협)
- 천안캠퍼스: 25명 (12개 단과대학, 여교협)
- 회장, 감사 등 3인 포함 총 52명의 운영진 구성

### 2. 프리미엄 원두커피 서비스 연장 시행

- 기존 시행 기간: 학기 기간
- 연장 시행 기간: 2019. 06. 27 ~ 2019. 07. 10 (계절학기 기간)

### 3. 2019년 1학기 신규 임용 전임교원 축전 발송

- 일시: 2019년 3월 15일(금)
- 내용: 죽전캠퍼스 9명, 천안캠퍼스 24명 (총 33명)

### 4. 2019년 1학기 신규 임용 전임교원 환영 오찬 시행

- 죽전: 2019년 3월 20일(수) 서래정육마을
- 천안: 2019년 3월 14일(목) 유생촌

### 5. 양 캠퍼스 중간고사기간 간식행사 실시

- 죽전: 4월 18일(목) 학생식당 앞(샌드위치 및 음료), 교협 단독시행  
김선욱 회장, 이기광 사무국장, 이영희 운영위원, 임은주 운영위원 참석
- 천안: 4월 17일(수) 울곡도서관 광장(피자), 총학생회 공동시행(75만원 지원)  
김선욱 회장, 이숙 부회장, 조상우 사무국장 참석



## 6. 2019 교수협의회 등반대회 및 신입교수 환영회 실시

- 일시: 2019년 4월 27일(토) 10:00 ~ 14:00
- 장소: 태조산 (충남 천안시 각원사길 245)
- 참석 인원: 47명 이상
- 기탁: 신입교원 대상으로 이니셜이 각인된 고급 텀블러 배부



## 7. 단국사랑바자회 테이프 커팅식 참석

- 일시: 2019년 5월 14일(화) 10:00
- 장소: 죽전캠퍼스 범정관 앞 분수대
- 참석 인원: 조한승 죽전부회장



1. 2019년 2학기 신규 임용 전임교원 축전 발송

- 일시: 2019년 8월 30일(금)
- 내용: 죽전캠퍼스 7명, 천안캠퍼스 12명 (총 19명)

2. 2019년 2학기 신규 임용 전임교원 환영 오찬 시행

- 죽전: 2019년 9월 25일(수) 서래정육마을  
김선욱 회장, 조한승 부회장, 김병을 감사 참석
- 천안: 2019년 9월 19일(목) 유생촌  
김선욱 회장, 조상우 사무국장 참석



3. 2019년 2학기 신입보직발령 교원 화환 및 명패 전달

- 일시: 2019년 9월 9일(월)
- 인원: 김수복 총장(화환), 강창현 대학원장(명패), 한종수 대학원장(명패)  
안순철 부총장(화환), 김종수 치과병원장(화환)
- 내용: 생애 첫 신규보직발령 교원에 대한 화환 및 명패 전달



#### 4. 양 캠퍼스 중간고사기간 간식행사 실시

- 죽전: 10월 16일(수) 학생식당 앞(샌드위치 및 음료), 교협 단독시행  
김선옥 회장, 조한승 부회장, 이기광 사무국장, 이영희, 임은주 운영위원 참석
- 천안: 10월 17일(목) 울곡도서관 광장(샌드위치 및 음료), 교협 단독시행  
김선옥 회장, 조상우 사무국장, 배개화 사무국장, 송상현, 배성만, 문태호, 강현옥 운영위원 참석



#### 5. 교협 30주년 기념책자 발간 및 출판기념회 실시

- 일시: 2019년 11월 28일(목) 17시
- 장소: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대학원동 교직원식당 VIP룸
- 내용: 교협 30주년을 기념하기위해 책자 발간 및 출판기념회 행사 실시  
16기 교협 임원진 및 운영위원, 김수복 총장님, 교무위원, 교협 역대 회장단 참석





## 활 동

## 총장 이임식 및 취임식 교원 대표 화환 전달

## 교수협의회 사무국

- 일시: 2019년 09월 26일
- 장소: 죽전캠퍼스 난파음악관 콘서트홀
- 내용: 김선욱 회장 축하 화환 전달  
장호성 총장님 대교협 회장 이임식



### 1. 대학평의원회 회의 참석 (김선욱회장, 조한승 부회장)

#### 1) 일시 및 장소

- (1) 1차 회의: 2019.4.19. 10:00 범정관 314호
- (2) 2차 회의: 2019.6.14. 범정관 314호
- (3) 3차 회의: 2019.7.11. 14:00 범정관 314호
- (4) 4차 회의: 2019.8.26. 15:00 범정관 314호
- (5) 5차 회의: 2019.10.16. 16:00 범정관 314호
- (6) 6차 회의: 2019.11.22. 15:00 범정관 314호
- (7) 7차 회의: 2020.1.15. 10:00 범정관 314호

#### 2) 회의내용

- 회계 결산 자문, 학칙 개정 심의, 대학 교육편제 조정안 자문 등.

### 2.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 위원활동(교원 대표위원 김선욱회장, 조한승 부회장)

- (1) 총추위 1차 회의 : 2019. 7. 3. 범정관 314호
  - 위원장 선출 및 일정 등 심의
- (2) 총추위 2차 회의 : 2019.7.23. 범정관 314호
  - 지원현황 (김수복교수, 김병량교수, 박범조교수) 보고 등
- (3) 총추위 3차 회의 : 2019.8.12. 오전 10:00 범정관 314호
  - 사전 서면 답변서 검토
  - 정책, 소견발표 및 질의응답

### 3. 2019학년도 임금협상 관련 단체협상 타결

- <2019학년도 단체협상>은 지난 3개월 동안 여러 차례 본협상과 실무협상을 거쳐 12.03 (화) 본협상을 통해 최종 타결되었다.

(1) 가족(배우자) 수당 신설 : 법인 및 산하기관에 부부(夫婦)가 교직원으로 각각 근무할 경우 배우자 1인에 한하여 가족(배우자)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함

(2) 타 대학 자녀학비 보조수당 인상 : 고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예산절감금액을 반영하여 2020.03.01부터 학기당 200,000원 인상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함

| 구분             | 지급내역              |                   | 비고              |
|----------------|-------------------|-------------------|-----------------|
|                | 기존                | 인상 후              |                 |
| 자녀학비 보조수당(타대학) | 학기당<br>1,300,000원 | 학기당<br>1,500,000원 | 학기당 200,000원 인상 |

(3) 정액급식비 인상(소급적용) : 2019.03.01부터 매월 10,000원 인상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함

| 구분    | 지급내역       |            | 비고           |
|-------|------------|------------|--------------|
|       | 기존         | 인상 후       |              |
| 정액급식비 | 월 150,000원 | 월 160,000원 | 월 10,000원 인상 |

활 동

기타 교협 활동

교수협의회 사무국

1. 양 캠퍼스 프리미엄 원두커피 서비스 시행
2. 교협 회비 수령(12개월분): 3월 15일 / 6월 15일 / 9월 11일 / 12월 13일
3. 교내 국토대장정 지원(피자증정)



#### 4. 교내 미화원 설 연휴 맞이 선물 증정

- 죽전: 2020년 1월 20일 (월) 09시 30분, 미화반 사무실  
김선욱 회장, 조한승 부회장, 이기광 사무국장, 김태연 감사 참석
- 천안: 2020년 1월 21일 (화) 10시, 미화반 사무실  
김선욱 회장 참석



### 1. 여교수협의회 주최 2019년 1차 특강 실시

- 내용: 테라리움 유리정원 만들기
- 일시: 2019년 5월 29(수) 17:30 ~ 19:30
- 장소: 천안캠퍼스 의과대학 107호 대회의실



### 2. 여교협 2차 특강(크리스마스 리스 만들기) 행사 실시

- 일시: 2019년 12월 09일 (월) 18시
- 장소: 죽전캠퍼스 국제관 502호
- 내용: 여교협 회원 및 단국대학교 교원 대상 특강 실시  
김선옥 회장, 이숙 부회장, 배개화 사무국장 참석



\* 총 43명

홍찬의 교수(치과대학) 부친상 근조기 설치 및 부의금 전달  
 이유찬 교수(스포츠과학대학) 빙모상 근조기 설치 및 부의금 전달  
 이항재 교수(외국어대학) 부친상 근조기 설치 및 부의금 전달  
 정영준 교수(의과대학) 모친상 근조기 설치 및 부의금 전달  
 윤기종 교수(공과대학) 모친상 근조기 설치 및 부의금 전달  
 안희진 교수(외국어대학) 부친상 근조기 설치 및 부의금 전달  
 이상덕 교수(자연과학대학) 모친상 근조기 설치 및 부의금 전달  
 손성진 교수(상경대학) 부친상 근조기 설치 및 부의금 전달  
 최태생 교수(의과대학) 빙모상 근조기 설치 및 부의금 전달  
 박창섭 교수(SW융합대학) 모친상 근조기 설치 및 부의금 전달  
 김용만 교수(스포츠과학대학) 빙모상 근조기 설치 및 부의금 전달  
 박 영 교수(문과대학) 모친상 근조기 설치 및 부의금 전달  
 김세환 교수(의과대학) 부친상 근조기 설치 및 부의금 전달  
 박건우 교수(의과대학) 모친상 근조기 설치 및 부의금 전달  
 한갑수 교수(의과대학) 본인상 근조기 설치  
 김애경 교수(간호대학) 시부상 근조기 설치 및 부의금 전달  
 이순일 교수(의과대학) 빙부상 근조기 설치 및 부의금 전달  
 하정현 교수(자연과학대학) 빙부상 근조기 설치 및 부의금 전달  
 윤석현 교수(공과대학) 빙부상 근조기 설치 및 부의금 전달  
 오민석 교수(문과대학) 부인상 근조기 설치 및 부의금 전달  
 이경화 교수(외국어대학) 부친상 근조기 설치 및 부의금 전달

김호동 교수(공과대학) 모친상 근조기 설치 및 부의금 전달  
 권민혁 교수(사범대학) 부인상 근조기 설치 및 부의금 전달  
 김형수 교수(사회과학대학) 부친상 근조기 설치 및 부의금 전달  
 상준 교수(의과대학) 빙부상 근조기 설치 및 부의금 전달  
 허경무 교수(공과대학) 빙모상 근조기 설치 및 부의금 전달  
 박 영 교수(문과대학) 부친상 근조기 설치 및 부의금 전달  
 이정휘 교수(공과대학) 부친상 근조기 설치 및 부의금 전달  
 강현욱 교수(스포츠과학대학) 모친상 근조기 설치 및 부의금 전달  
 김재엽 교수(공과대학) 본인 결혼 축의금 및 축하화환 전달  
 이상범 교수(SW융합대학) 빙부상 근조기 설치 및 부의금 전달  
 김선아 교수(영화콘텐츠전문대학원) 모친상 근조기 설치 및 부의금 전달  
 김지태 교수(스포츠과학대학) 부친상 근조기 설치 및 부의금 전달  
 구용서 교수(공과대학) 빙모상 근조기 설치 및 부의금 전달  
 김영제 교수(문과대학) 모친상 근조기 설치 및 부의금 전달  
 임흥빈 교수(자연과학대학) 부친상 근조기 설치 및 부의금 전달  
 한경수 교수(교양교육대학) 본인상 근조기 설치 및 부의금 전달  
 권지안 교수(자연과학대학) 부친상 근조기 설치 및 부의금 전달  
 최용 교수(융합기술대학) 빙모상 부의금 전달  
 김병남 교수(공과대학) 빙모상 부의금 전달  
 이운정 교수(약학대학) 본인 결혼 축하 화환 및 축의금 전달  
 권중원 교수(보건과학대학) 빙부상 근조기 설치 및 부의금 전달  
 백기청 교수(의과대학) 빙부상 근조기 설치 및 부의금 전달

명 단

제16기 교수협의회 임원 및 운영위원

교수협의회 사무국

[ 임 원 ]

| 구 분    | 소속 대학 / 학과 |          | 성 명 | 연 락 처  |               |                            | 연 구 실     |
|--------|------------|----------|-----|--------|---------------|----------------------------|-----------|
|        |            |          |     | Office | Mobile        | e-mail<br>(@dankook.ac.kr) |           |
| 회장     | 융합기술대학     | 산업공학과    | 김선욱 | 3573   | 010-8808-0605 | kimsunuk                   | 보건간호관 617 |
| 부회장    | 간호대학       | 간호학과     | 이 숙 | 3887   | 010-6704-3786 | moonlight                  | 의학관 243   |
|        | 사회과학대학     | 정치외교학과   | 조한승 | 3318   | 010-6348-4610 | hanscho                    | 사회과학관 408 |
| 사무국장   | 교양교육대학     | 교양학부     | 조상우 | 1569   | 010-3775-2993 | casskiss                   | 인문과학관 227 |
| 지회사무국장 | 교양교육대학     | 교양학부     | 배개화 | 1579   | 010-8555-7250 | gaenarie                   | 인문과학관 229 |
|        | 상경대학       | 경영학과     | 이기광 | 3421   | 010-6212-2171 | kiklee                     | 상경관 520   |
| 감사     | 공공인재대학     | 환경자원경제학과 | 김태연 | 3614   | 010-7137-6325 | tykim                      | 사회과학관 136 |
|        | 예술디자인대학    | 도예과      | 김병울 | 3095   | 010-7339-4740 | yeoul4740                  | 미술관 305   |

[ 운영위원 - 죽전캠퍼스 ] - 24명 [ 운영위원 - 천안캠퍼스 ] - 25명

| 구 분                    | 소속 대학 / 학과      |                | 성 명 |
|------------------------|-----------------|----------------|-----|
| 죽전캠퍼스<br>운영위원<br>(24명) | 문과대학            | 영미인문학과         | 위혜경 |
|                        |                 | 국어국문학과         | 김옥성 |
|                        | 음악예술대학          | 커뮤니케이션<br>디자인과 | 한석원 |
|                        |                 | 성악과            | 김난희 |
|                        |                 | 국악과            | 이수진 |
|                        | SW융합대학          | 소프트웨어학과        | 오세종 |
|                        |                 | 응용컴퓨터공학과       | 박경신 |
|                        | 사회과학대학          | 정치외교학과         | 조한승 |
|                        |                 | 커뮤니케이션학부       | 전중우 |
|                        | 법과대학            | 법학과            | 최호진 |
|                        |                 | 법학과            | 박영준 |
|                        | 경영경제대학          | 경제학과           | 서문석 |
|                        |                 | 경영학부           | 이기광 |
|                        |                 | 경영학부           | 천성용 |
|                        |                 | 경영학부           | 문보영 |
|                        | 공과대학            | 건축학과           | 홍경구 |
|                        |                 | 화학공학과          | 장수환 |
|                        |                 | 전자전기공학부        | 이지행 |
|                        | 일반/특수/전문<br>대학원 | 교육학과           | 이영희 |
|                        |                 | 교육학과           | 박명선 |
|                        |                 | 행정법무대학원        | 이환수 |
|                        | 교양교육대학          | 교양학부           | 서응교 |
|                        | 사범대학            | 체육교육과          | 최형준 |
|                        |                 | 과학교육과          | 임은주 |

| 구 분                    | 소속 대학 / 학과         |                  | 성 명 |
|------------------------|--------------------|------------------|-----|
| 천안캠퍼스<br>운영위원<br>(25명) | 외국어대학              | 프랑스어과            | 김현주 |
|                        |                    | 중동학과             | 송상현 |
|                        | 보건복지대학             | 해병대군사학과          | 이표규 |
|                        |                    | 심리치료학과           | 배성만 |
|                        |                    | 공공관리학과           | 임동완 |
|                        | 과학기술대학             | 분자생물학과           | 윤보은 |
|                        |                    | 신소재공학과           | 문태호 |
|                        |                    | 식품공학과            | 이형재 |
|                        | 생명공학대학             | 동물자원학과           | 김현범 |
|                        | 예술대학               | 예술학부             | 정치영 |
|                        |                    | 미술학부             | 조희경 |
|                        | 스포츠과학대학            | 생활체육학과           | 강현욱 |
|                        | 간호대학               | 간호학과<br>(여교협 회장) | 이 숙 |
|                        |                    | 간호학과             | 오세은 |
|                        | 약학대학               | 약학과              | 이충현 |
|                        | 교양교육대학             | 교양학부             | 조상우 |
|                        |                    | 교양학부(여교협)        | 배개화 |
|                        | 의과대학               | 의학과              | 조경진 |
|                        |                    | 의학과              | 김유미 |
|                        |                    | 의학과              | 민준원 |
|                        | 치과대학               | 치의학과             | 조자원 |
|                        |                    | 치의학과             | 이준석 |
|                        |                    | 치의학과             | 김종빈 |
|                        | 자연과학대학 /<br>융합기술대학 | 나노바이오의과학<br>과    | 조정희 |
|                        |                    | 제약공학과            | 오세행 |

연 락 처

제16기 교수협의회 사무국

교수협의회 사무국

사무국장 : 조상우 교수 (천안캠퍼스: casskiss@dankook.ac.kr), (041)550-1569, 010-3775-2993

죽전조교 : 민경수 조교 (죽전캠퍼스: 12190363@dankook.ac.kr), (031)8005-2894, 010-7612-7555

천안조교 : 최광웅 조교 (천안캠퍼스: 12191001@dankook.ac.kr), (041)550-1553, 010-6551-4825

교협브리프는 우리대학 교수님들의 집단지성에 의해 작성, 배포되고 있습니다. 학내 소통의 공간 형성을 실천하는 첫걸음으로, 교수님들의 애정 어린 비판과 적극적인 제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메일 혹은 방문 환영합니다  
e-mail : [prof@dankook.ac.kr](mailto:prof@dankook.ac.kr) 익명/기명 원고를 작성하여 본 전자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관심 부탁드립니다



교협 신 로고디자인-마상영, 제16기 교수협의회 슬로건 '섬김, 소통, 참여'를 손 형태로 상징화함  
교협브리프16-1 발행일 2020년 2월 28일 발행인-김선욱, 인쇄-조상우, 편집-배개화, 디자인-정훈동, 행정-최광웅·민경수  
충남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19 자연과학 1관 105-1호 Tel 041-550-1553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